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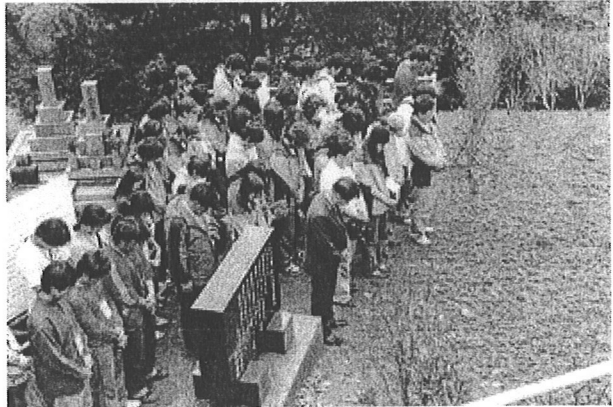
국제신문

www.KOOKJE.co.kr

2005년 11월 07일

"시민의 손으로 동아시아 평화 연다"

일본 기타규슈의 외딴 언덕 30평에 세워진 오다야마 위령비. 묘지의 주인공은 광복을 맞아 목선을 타고 귀국하던 한인 80명이다. 지난 1일 부산을 떠난 광복 60주년 평화사절단 382명은 러시아 연해주를 거쳐 6일 조선인 강제징용의 아픈 역사가 서린 일본 후쿠오카 하카타항에 도착했다. 그러나 고향의 흙을 밟지 못한 조선인들의 자취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귀국길에 태풍을 만나 수몰된 영혼들의 흔적은 1990년 재일동포들의 요구로 건립된 위령비가 전부였다. 설동일 평화사절단 운영위원장은 "바라만 봐도 눈물이 난다"고 했다.



평화사절단 대학생대표단이 6일 일본 기타규슈시 와카마쓰구에 위치한 오다야마 조선인조난자 묘지를 방문, 조문하고 있다. 후쿠오카=서순룡기자
seosy@kookje.co.kr

아픈 역사 만큼이나 현재의 한·일 관계도 삼엄하다. 과연 한국과 일본의 화해는 가능한 것일까. 이날 후쿠오카 서일본신문사에서 열린 한·일 시민단체의 첫 대규모 학술세미나에서 그 해답의 일부를 찾을 수 있었다. 부산의 20개 비정부기구(NGO)와 일본의 70여개 비영리기구(NPO)는 '시민의 손으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기초를'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첫 발제자인 세이난대학 오가와 유우헤이 교수는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와 연대의식을 맺지 못한채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해 왔다"며 △동해~일본해~동중국해를 잇는 동아시아 지중해 경제권 형성 △남·북철도 및 한·일 해저터널로 상징되는 물류 공동체 △러시아 극동지역 천연자원 공동이용을 통한 에너지 공동체 건설로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자고 제안했다. 유럽연합(EU)처럼 경제협력체를 구축하자는 것.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성공회대 NGO대학원 박상필 교수는 "한·중·일 3국이 민족감정과 다수결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교과서 왜곡을 비롯한 공동의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일동포의 정체성 위기도 논의됐다. 후쿠오카 조선인학교 최유복 이사장은 "남북 정부는 광복 60주년이 되도록 재일동포에게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한국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민단 계열의 한인들은 90% 이상이 민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서 "일본에 한국인 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모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한·일 시민단체 교류의 하이라이트는 '후쿠오카-부산 평화선언문' 채택이었다. 크게 5개항으로 구성된 선언문은 한·일 시민단체가 동북아 평화 메신저 역할을 하고 평화를 흔드는 모든 위협에 공동 대응하자는 내용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인 니시오 소이치로(12)군의 한·중·일 갯벌학교 체험담 발표는 인상적이었다. "중국 다롄에서 봤던 철새가 일본 후쿠오카로 긴 여행을 하다 부산에서 휴식했어요. 오염되지 않은 갯벌을 찾는 철새에겐 국경의 벽이 없어요."

후쿠오카=이노성기자 nsl@kookje.co.kr

Copyright 2004. All rights reserved by kookje.
webmaster@kookje.co.kr

国際新聞 2005 年 11 月 7 日

市民の手で東アジアの平和開く

日本の北九州のぼつんとした丘 30 坪に立てられた小田山慰霊碑。墓地の主人公は光復を迎え木造船に乗って帰国しようとしていた韓国人 80 人だ。去る 1 日、釜山を出発した光復 60 周年平和使節団 382 人はロシア沿海地方を經由し 6 日、朝鮮人強制徴用の心苦しい歴史が漂う日本の福岡博多港に到着した。しかし、故郷の土を踏むことができなかった朝鮮人たちの行方を捜すのは簡単ではなかった。帰国路で台風に遭い水没した魂たちの痕跡は、1990 年に在日同胞たちの要求で建立された慰霊碑が全てであった。ソル・トンイル平和使節団運営委員長は「見るだけでも涙がでる」と言った。

心苦しい歴史ほどに現在の日・韓関係も極めて厳しい。果たして韓国と日本の和解は可能だろうか。この日、福岡西日本新聞社で開かれた日・韓市民団体の初の大規模学術セミナーでその解答の一部を見つけることができた。釜山の 20 個の非政府機構（NGO）と日本の 70 余個の非営利機構（NPO）は「市民の手で東アジア平和共同体の基礎を」という主題でセミナーを持った。

初めの発題者である西南大学オガワ ユウヘイ教授は「日本は東アジア国家と連帯意識を結ぶことができないまま、経済的な利益だけを追求してきた」といい、△東海～日本海～東中国海を結ぶ東アジア地中海経済圏の形成△南北鉄道および日韓海底トンネルに象徴される物流共同体△ロシア極東地域の天然資源の共同利用を通じたエネルギー共同体の建設で「経済的な同伴者」の関係を形成しようと提案した。ヨーロッパ連合（EU）のように経済協力体を構築しようというもの。

市民社会の重要性を強調する声も高かった。ソンゴンフェ（聖公会）大 NGO 大学院パク・サンピル教授は「韓・中・日の 3 国が民族感情と多数決によって動くので過去の問題ひとつ満足に解決できずにいる」と言いながら「地域共同体を作り、教科書歪曲を初めとする共同の問題に対応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

在日同胞の政治性の危機も論議された。福岡朝鮮人学校のチェ・ユボク理事長は「南北の政府は光復 60 周年になるまで在日同胞に国民の基本権利である参政権を認めないでいる。どうして韓国人だと考え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か」と反問した。彼はまた「民団系列の韓国人たちは 90%以上が民族教育を満足に受けられなかった。」と言いながら「日本に韓国人学校が建てられるよう母国の支

援が必要である」と促した。

この日、日・韓市民団体交流のハイライトは「福岡―釜山 平和宣言文」の採択であった。大きく 5 つの項目で構成された宣言文は、日・韓市民団体が東北アジアの平和メッセンジャーの役割をして平和を揺さぶる脅威に共同対応しようという内容であった。

小学校 5 年生のニシオ ソウイチロウ君(12)の韓・中・日干潟学校体験談の発表は印象的だった。「中国大連で見た渡り鳥が日本の福岡に長い旅行をして釜山で休憩しました。汚染されていない干潟を探す渡り鳥には国境の壁がありません」